

완주 봉서천 생태하천 안전사고 불감증 만연

경고판·피드럼 등 방지시설 갖춰지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추락위험·안전장구도 미착용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건설현장이 안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1km 구간의 대형공사 현장에 안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통행자의 인사 사고가 우려 되고 있는 상황.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에서 발주한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서 상운리 소양천 합류점까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공사로서 오는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통행자들의 인사사고 등 위험 요소가 상당하지만 관계당국의 관리가 전혀 안돼 있다는 것. 총 5.1km의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대규모 공사에 위험 경고판이나 피드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제방도로의 단절부분은 어떠한 위험 경고도 돼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추락위험이 있어 인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모나 안전화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작업에 임하고 있는 상태여서 안전사고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다. 철저한 안전교육도 요구된다.

감독관청 관계자는 '책임 감리자 감리단에서 일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관할군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질문에 "지난주에도 현장에 다녀 왔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지난주에도 현장 직원에 대한 안전



완주군은 용진면 간중리에서 상운리 소양천 합류점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이 있었으며 다음주에 또 안전교육을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진안군 정천면 항가동마을과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는 5일 농촌사랑 '1과1촌 자매' 마을 협약을 체결했다.

진안 항가동마을-농식품부 1과1촌 자매결연

진안군 정천면 항가동마을(이장 이금봉)과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는 5일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을 위해 농촌사랑 '1과1촌 자매' 마을 협약을 체결했다.

항가동마을은 지난해 정천면 상항마을에서 분리된 마을로써 주민단체의 기회로 마을가꾸기사업인 진안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참여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는 참살기 사업을 지원받아 마을주변 쓰레기 등 흉물을 제거하고 마을 내 도라지 및 꽃나무 심기 등 마을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마을이다.

이날 1과1촌 자매결연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함께 참살기사업 일환으로 마을환경

정비와 꽃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금봉 이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마을환경 정비 등을 통해 농촌사랑을 소중하게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앞으로도 항가동마을주민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농촌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인 1과1촌운동은 열악한 환경에 고품위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마을이 공공기관과 함께 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운동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을 맞아 5일 무주 적상산 일원에서 어린이들과 편백나무 3천 그루를 심었다.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 적상산서 편백나무 3천 그루 식재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제7회 식목일을 맞아 5일 무주군 적상산에 위치한 적상산 일원 국유림에서 편백나무 3천 그루를 심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과 산림청 직원(본청·서부청·무주국유림관리소),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특히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이 '오늘 심은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자라 미래에 울창한 숲을 이루듯, 아이들이 나무심기를 통하여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나무심기 사업에 총 2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880개에 달하는 면적(573ha)에 낙엽송편백 등 경제수종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밀원수종 등 총 192만 그루의 나무를 이달 말까지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편백숲 확대 조성

박성일 군수 등 160여명 참가 1000여 그루 심어

완주군은 제7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5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등 공무원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완주군은 5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근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환경변화에 의하여 나무심기와 산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나무심기행사는 피톤치드가 다량 방출되어 아토피 치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편백나무를 지난해에 이어 1,000본을 추가 식재 하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사,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의 중요성과 나무심기를 통해 함께 이룬 숲들이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 됨을 강조하였으며, 건조

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정성껏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연차적으로 고산자연휴양림 내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편백나무숲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중복기자

완주군, 청년정책 수립한다

청년인구 2만 5천명 자립 생태계 구축 추진

완주군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완주군은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적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을 사회의 중심층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청년정책 수립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완주군의 기본계획은 교육, 일자리 복지, 귀농귀촌, 사회참여 등 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문제를 청년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하고 분야별로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특히 완주군 전체 인구 중 28%를 차지하는 19~39세 청년층(2만 5000명)의 취업, 복지 등 전 분야에서의 자립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허리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완주군은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7~8월경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 창업지원, 대학·직업교육 등 능력개발 증진방안, 청년복지 증진 및

문화활성화, 군정에서의 청년참여 확대 및 권리 증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완주군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각종 청년정책을 9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청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청년 포럼, 조례 제정, 청년활동 공간 구축, 분야별 청년정책 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취업난과 함께 정치, 경제 등 사회참여 부족, 청년복지 정책 부재, 문화 및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20~30대의 청년은 사회 밖으로 떠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침으로써, 청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진안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패 받아

나눔문화 확산 적극참여

진안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 희망나눔 캠페인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희망나눔 캠페인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추진됐으며, 진안군민과 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자발적 참여로 1억20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종성 회장은 "진안군에서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을 적극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이웃사랑 성금모금은 군민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이뤄낸 성과"라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로컬푸드리츠

장수군, 안전사고 예방 안전

군은 해빙기 및 봄철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5일 오후 1시 천만산(천천면 연평리 소재)에서 4월 중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했다.

이날 관계공무원과 재난네트워크 등 30여명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을 맞아 등산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논두렁, 밭두렁 등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웹 및 앱과 영농철 대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이 실린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전개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진안군은 귀농귀촌 1번지에 걸 맞는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수도권 도시민 상담 및 귀농학교 운영,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등 6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분야별 사업추진을 통해 보다 쉽게 진안에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시민을 유치한 결과 매년 평균 60여 가구 123명의 귀농·귀촌인이 진안군에 정착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진안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썰기 실적파출소 범죄예방 활동 강화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선천파출소 안회용 소장은 농번기 빈집털이 등 민생 안전 침해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방법체계를 구축 전방위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소 123공감순찰과 골목길 순찰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온 선천파출소 안 소장은 농번기를 맞아 빈집털이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마을 실정에 정통한 자율방범대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주변과 공원, 놀이터 및 여성 안심귀갓길 등 범죄 가능 구역을 세분화해 분담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로, 협력단체와 월 1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안관련 사항을 공유하면서 범죄 예방에 다같이 노력하는 한편 민·경 합동차량을 통한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관내 인내 범죄예방 현황을 근거로 취약 시간과 장소별 설정 집중순찰을 실시하며 자율방범대 운용차량과 112순찰차량 활용 야간자율학습 학생 귀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차안 여건에 맞는 협력차량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도연 서장은 "협력방범을 실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민·경이 하나 되는 완벽한 협력방범을 통해 안전한 무주, 관광 무주의 이미지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썰기, 교통사고예방 '앞장'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5일 장수읍 농업연수원을 찾은 인천 당산초등학교 체험학습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한 인솔교사 10명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수군 만들기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 버스운전자 상대 읍주여부확인과 대역운행금지 불법구조변경등을 점검하였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인솔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띠착용과 차내 소란행위금지등을 당부하고 동남원IC까지 체험학습차량을 에스코트 하였다.

윤종섭 서장은 "장수를 찾는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며,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